

29. 전통(傳統), 역사의 마을 정릿골⁵⁸⁾

- ◎ 유배인(流配人) 심래복(沈來復) 등은 왕조(王朝) 전복 계획 세워
- ◎ 토호(土豪) 재물 털어 농민에게 나눠준 이완평(李完平)

제주도의 산간 마을 가운데는 예로부터 콧대 높은 마을들이 많다. 갯가를 멀리하고 깊은 산골을 선호하는 선비들의 신선 사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때문인지 제주도의 반촌(班村)은 거의 중산간 지역에 형성돼 있다. 그런 가운데도 정릿골[정의현(旌義縣)·표선면 성읍리(城邑里)] 사람들의 긍지는 더욱 높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성읍리에 정의(旌義) 고을이 들어선 것은 1423년(세종 5)의 일이었다. 당시 안무사(按撫使) 정간(鄭幹)이 건의하여 고성(古城)[성산읍(城山邑)]에 있던 읍을 이곳으로 옮기면서부터였다.

58) 『한라일보』 제178호 (1989. 11. 18).



! 정읍읍(旌義邑) 조점도(操點圖)! 이 그림은 숙종 때 목사 이형상(李衡祥)이 정의현을 시찰했을 때의 그림이다. 영주산(瀛洲山)과 달산대(達山臺) 사이에 정의읍성(旌義邑城)이 소상하게 나타났다.

『탐라지(耽羅志)』 등을 보면 그에 앞서 1416년(태종 16) 안무사 오식(吳湜)의 건의에 따라 종전에 동·서도(東·西道) 15현(縣)으로 나누었던 제주도의 행정구역을 삼읍(三邑)으로 나누고 있다. 한라산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산북은 제주목(濟州牧) 산남은 이것을 다시 동서로 양분하여 동쪽을 정의현(旌義縣), 서쪽을 대정현(大靜縣)으로 하였다.



| 정의현성 남문과 돌하루방(표선면 성읍리) | 정의현성의 돌하루방은 동문·서문·남문 앞에 각각 4기씩 총 12기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2-22~33호로 지정됨.

13일에 마친 성(城) 공사(工事)

정의현은 본읍을 처음에는 고성에 두었으나 왜구(倭寇)의 침입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겼으므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이곳은 동도(東道) 정의현의 진사리(晉舍里)였다.

1423년 처음으로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천 9백 86척, 높이가 13척 이었고 삼문(三門)을 두었다. 배추(裴樞)의 기문을 보면 이 축성공사는 판관(判官) 최치렴(崔致廉)이 직접 감독하여 그해 1월 9일에 착공, 13일 만에 마쳤으니 참으로 신기하다고 하였다.

정의읍을 진사리로 선택한 것은 안무사 정간이었고 그가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떠날 참이었으므로 공사를 서둘게 된 것은 짐작이 간다. 그렇다고 해도 불과 13일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의문이 아

닐 수 없다.

성내에는 객사(客舍) 동헌(東軒)을 비롯하여 향사당(鄉社堂), 출신청(出身廳), 무학청(武學廳), 작청(作廳), 동·서·남문루(東·西·南門樓), 사창(司倉), 향교(鄉校) 등이 세워졌다. 그 뒤로도 탐라동관(耽羅東館), 일관헌(日觀軒), 현사(縣司), 대변청(待變廳), 군관청(軍官廳) 등 여러 건물이 들어섰다.

이로부터 1914년 정의 대정 양군(兩郡)이 제주군(濟州郡)에 편입될 때까지 성읍은 근 5백년에 걸쳐 제주도 동남지역을 관할하는 고을이었던 것이다. 정윳골 사람들이 남다른 긍지를 지닌다는 것은 어쩌면 역사적 전통을 배경으로 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정의골도 대정골 못지않게 많은 사연을 지닌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선조(宣祖)의 아들 인성군(仁城君)이 사사(賜死)되면서 그 부인과 아들 세 형제가 유배된 것을 비롯하여 왕족, 대신, 학자들 많은 인사들이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그 저명한 인물들을 보면

인조(仁祖) 때

해안군(海安君)[이억(李億)]

해원군(海原君)[이건(李健)]

현종(顯宗) 때

송지겸(宋之謙)

숙종 때

임창군(臨昌君)[이훈(李焄)]

임성군(臨城君)[이엽(李焜)]

김선필(金善弼)

민시준(閔時俊)

경종 때

조성복(趙聖復)

조정빈(趙鼎彬)

김선재(金善材)

이시필(李時弼)

이수민(李壽民)

영조 때

김일경(金一慶)

김성탁(金聖鐸)

이존중(李存中)

이훈(李堧)

이윤석(李胤錫)

이주석(李胄錫)

이사석(李師錫)

목덕복(睦德福)

심래복(沈來復)

심지복(沈志復)

심양복(沈陽復)

신사운(申思運)

정조 때

조정철(趙貞喆)

이회수(李會遂)

순조 때

김한록(金漢祿)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정윳골에는 특히 18세기에 가장 많은 유배인들이 몰렸다. 이때는 신임사화(辛壬士禍)와 나주(羅州) 벽서(壁書)사건, 을해(乙亥) 사변 등이 터질 때였는데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거 유배되었기 때문이었다.

적객(謫客) 이훈(李璣)을 추대

1763년(영조 39)에는 이들 유배인들이 중심이 된 왕조(王朝)전복기도 사건이 정윳골을 기점으로 터졌다. 이때의 주동인물은 정윳골의 유배인 심래복이었다. 그는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연좌되어 죽은 심익연(沈益衍)의 아들이요, 을해 사변 때 죽은 심정연(沈貞衍)의 조카였다. 그도 을해 사변에 연루되어 그의 아우 지복, 양복과 함께 정의현에 유배되



| 정의현성(표선면 성읍리) | 정의현성은 1416년 제주안무사 오식이 성산을 고성리에 처음 세웠다가 1422년 정간 안무사가 현 위치로 옮겨 세웠다. 성 넘어 성읍민속마을이 보이고 그 뒤로 영주산이 의연히 서 있다.

었던 것이다.

그는 두 사건으로 일가가 몰살되고 유배된 데 대하여 늘 반감을 품어오다가 마침 제주도에 같은 연루로 유배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기회로 반란(反亂) 계획을 서둘게 된 것이다.

때마침 정의에는 종실의 이훈이 적거 중에 있었으므로 그를 임금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먼저 제주에서 장정을 모집하고 훈련시킨 다음 상인으로 위장시켜 전라도에 상륙시키고 특공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 고을을 습격하여 무기와 군량을 확보하고 군사를 더 모집한 다음 서울로 진격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대정(大靜)에 적거 중이던 조영득(趙榮得)과 연락을 하면서 유배인은 물론 제주도민이나 관리까지 포섭하여 많은 동지를 얻었다.

그러나 좁은 섬에서 여러 날에 걸쳐 조직적인 활동이 일어났으므로 그 기밀이 자연 세고 말았다. 1763년 7월 그들은 일망타진되어 서울로 압송됨으로서 이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때 주동인물이었던 심래복(沈來復)을 위시하여 조영득[조태구(趙泰耆)의 손자], 류동혼(柳東渾)[류봉휘(柳鳳輝)의 손자], 조경수(曹敬修)[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능효(李能孝), 윤몽정(尹夢鼎), 김제해(金濟海), 김운해(金運海), 윤연(尹戀), 정관(正觀), 심지복(沈志復), 심양복(沈陽復), 조영철(趙榮喆), 이훈(李堧), 권유(權維), 강익주(姜翊周)[대정 사람] 등은 처형되거나 옥사했다.

이밖에 많은 제주 사람들 그리고 제주목사 신광익(申光翼)과 3읍의 관장 관리들이 모두 서울로 압송되어 처벌을 받거나 유형 되었다.

발각이 한발 짝만 늦었더라면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이 전국을 휩쓸어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놓을 뻔한 사건이었다.

신묘(辛卯) 민요(民擾)도 일어나

정윗골을 이야기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사건으로 신묘년(辛卯年) 민요(民擾)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정의에서 일어나 정의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일반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1891년(고종 28) 2월 정윗 사람 이완평(李完平), 현계환(玄啓煥) 등은 민중 집회를 열어 관리와 악질 토호(土豪)들의 비위 사실을 성토했다. 이완평은 모인 군중을 이끌고 농민을 착취한 토호의 집을 습격하여 재물을 몰수하고 그것을 굶주린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농민들

이 모두 그의 의거에 박수를 보내고 그를 지지하였다.

당황한 것은 목사 조균하(趙均夏)였다. 마침 전 해에 김지(金志)의 난이 있었으므로 평소 대비했던 관군을 이끌고 곧 출동했다. 조직 훈련된 군대 앞에 갑자기 모인 군중은 당할 수가 없었다.

이때의 『고종실록(高宗實錄)』을 보면 목사 조균하는 “정의현 무뢰배(無賴輩)가 작당하여 민간인을 구박하고 재물을 박탈하므로 괴수 이완평 등 넷을 현장에서 죽이고 이에 가담한 현계환 등 8명은 정배(定配)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치밀한 계획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동자들의 희생으로 쉽게 끝나버린 사건이었다. 그러나 농민의 착취를 일삼던 토호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며 켜기를 박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5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성읍(城邑) 마을은 민속(民俗) 마을로 지정이 돼 보존되고 있다. 그 역사만큼이나 도내에서는 가장 뼈대 깊은 전통문화를 지닌 고장이라고 할 것이다.

정잇 사람들은 결코 그 긍지를 저버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